큰스님 수행한담

"깨달을 길 없습니다"

◇해운정사 금모선원에서 수행하는 수좌들. 진제스님(사진 가운데)이 장군죽비를 들고 수행자들의 공안 타파를 돕고 있다.

바른 법문 듣고 화두 놓지않으면 부엌 안방 사무실 만원버스 어디든지 일등선방입니다

"관"하고 답하자 선사께서 "옳고, 옳다"며 하셨던 그 때가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인가를 하는 법인데, 요즘은 은밀히 밀실 속에 아무도 모르게 '제자에게 인가를 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도인이다"하며 횡설수설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백만인천 대중 앞에서 우담바라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어 보이니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을 가섭존자에게 전한다"고 백일하에 드러내 보이셨는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무사자오(無師自悟)는 외도라며 스승없이 깨달은 자는 다 사견에 떨어져 있으니, 지도 받는 데 삼가고 또 삼가라 하셨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저는 발심할 때 좋은 스승(석우스님)을 만나 신심을 길렀고, 마음공부할 때 밝은 스승(향곡스님)을 만나 철방망이를 맞았으니, 수행에 빈틈이 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습기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수행생활을 해 온 셈입니다. 아마도 절집 좋은 인연은 나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선근공덕을 타고 난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심안(心眼)이 열리면 모든 불조가 설한 법문이 한 꼬챙이에 다 꿰이는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도 성품을 봐서 부처를 이루었고, 모든 도인도 성품을 봐서 도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화두를 가지고 생활 속에 오매불망 일념으로 지속해 보세요. 화두가 일매삼매 중에 타파만 되면 부처님이나 모든 도인과 더불어 동일한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활구 참선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의심이 깨닫는 생명력입니다. 의심이 생명력인고로 바른 공부를 지어갈 것 같으면 한 생에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갖추게 되는 법입니다.

옛날 도인 스님네들이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크다했습니다. 어떤 것이 활구참선이겠습니까.

일천성인(一天聖人)의 머리 위에 일구(일구)를 투과해야 활구가 됩니다. 일천성인의 머리 위에 일구를 뚫어 지나가지 못할 것같으면 활구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활구참선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설한 만 가지 진리법은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를 오매불망 의심하고 생각하고, 한 생각이 쭉 시냇물과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여기에 서서히 모든 마음속 갈등이 다 없어집니다. 미워하고 좋아하고, '나'라는 허세 등 이러한 것이 없어지는 동시에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보는 것, 듣는 것 다 잊어 버리고 시간이 흐른 줄도 모르는 일념에서 홀연히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화두가 타파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활구참선법이요, 활구 깨닫는 열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바르게 지어갈 것 같으면 1백 명 중에 99명은 다 견성도인이 됩니다. '생활 속 참수행'에 좀더 말씀드릴까요.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면 만 가지의 진리의 법이 현전(現前)하고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의 진리 법이 없음이라.

마음은 만 가지 진리법의 주인입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 알 것 같으면 만법(萬法)에 임의자재(任意自在)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온갖 무명업식(無明業識)으로 인해 번뇌가 쉴 날이 없습니다.

'나'라는 허세 버리고 오매불망 일념에 참선으로 마음 밝혀 만법의 주인되세요

우리가 참선수행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을 밝혀서 만법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위산(위山) 선사께서 상당하시어 이러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각자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항시 면전(面前)에 출입자재(出入自在)하는데,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이를 보느냐?"

대중 가운데 한 청신녀가 이 법문을 듣고서, '사람마다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쓰고 있다는데, 나는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고?' 하는 분심(憤心)이 일어 오개불망(寤寐不忘) 의심하고 참구했다고 합니다.

이 보살은 세간살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 시골 장터에서 빵을 구워 팔아서 생활을 꾸리며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구월심으로 화두일념을 지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간절하게 골수에 사무치도록 공부한 결과, 하루는 빵을 굽는 도중에 홀연히 화두 관문이 타파되어 모양없는 참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빵소쿠리를 팽개쳐 버리고 위산 선사를 찾아가니 선사께서, 벌써 간파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모양 없는 참사람이냐?"

그러자 보살이 송(頌)으로 답하기를,

머리는 셋이요, 팔은 여섯 가진 대장사가(三頭六臂大力將)
한 주먹으로 태화산을 쳐부숨에(一擧擊破泰和山)
천겹 만겹의 태화산이 두 동강이 나니(分破和山千萬重)
만 년이나 흐르는 물은 봄을 알지 못하더라.(萬年流水不知春)

이렇게 깨달은 경지를 송(頌)하자, 위산 선사께서 들으시고는 "그대가 바로 알았느니라"하고 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청신녀가 바로 유도바 보살입니다.

이렇듯 시끌벅적한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인네가 화두 관문을 뚫어 일대사(一大事)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참선공부하는 것이 오로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속, 남녀, 어떠한 경계, 그 어떠한 형상과도 무관한 것이 이 참선법입니다. 그리고 참선방(參禪房)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지도를 받아서 걸음걸음 화두를 놓지 않으면, 부엌이나 안방이나 사무실이나 만원 버스 등, 가는 곳마다 다 일등 선방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법을 익히지 않고, 앉아 있을 때는 화두가 있는 듯하다가 서면 달아나고 걸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공부를 짓는다면 백 생(百生)을 하더라도 진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만약 시회대중이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각자의 화두를 오장육부에 사무치도록 지어간다면, 시절인연을 만나 확연히 열리니, 여러분도 다시 한번 대신심(大信心)과 분심(憤心)을 내어 보십시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손 기 완
〈대구 능인고 교감〉

새싹 포교에 미력한 힘이라도… '나란 무엇인가' 답찾다 포교사 돼

일상 속에서 어딘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일 때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진다. 어느 누군들 어머니의 품이야 마음의 고향이 아니겠는가마는 어릴 때부터 불심을 심어주신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시고 가셨다.

무언중에, 그리고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불심을 키워 주시던 어머니께서 벌써 유명을 달리 하신지 어언 1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나 또한 이순의 나이를 넘었으니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많이 배운 것이 없으면서도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향학열을 '언제나 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간됨을 실생활에서 보여주신 어머니. 조그마한 음식만 생겨도 이웃과 나누어 드시는 어머니의 성품을 보면서 나는 보시의 정신을 알게 모르게 키워 왔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자연의 순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함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사범대학을 택하게 되었고 또한 어릴 적부터 보리의 싹을 트게 하신 어머님의 공덕이 나를 불교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로 부임케 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불교를 제대로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종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불교행사에 참석했으나 그 가운데 방학마다 실시하는 전국종립학교 교직원 수련대회와 송광사 5박6일 수련대회는 많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지금은 입적하시고 안 계신 구산큰스님께서 직접 참선하는 법을 지도해 주셨다. "나의 육체를 운전하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 허공, 부처도 아니다. 그럼 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큰스님의 말씀은 더욱 더 의아심만 갖게 한다. 그러하다면 나 자신도 무(無)란 말인가. 일체중생들이 실유불성이라 하였으니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국제선원에 계시던 혜국스님께서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수련을 마치고 온 뒤에도 혜국스님께서는 〈불교입문〉 등의 불서를 보내 주셔서 불도의 길을 재촉해 주셨다. 이같은 인연으로 인해 나는 83년 4월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연수에 참가하여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대구지역 포교 법사단에 참가하여 활동하면서 교도소에 법회 하러 간 것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단주를 손에 굴리면서 눈을 지그시 내려감고 나의 이 슬픈 법문에 귀를 기우려 주는 수형생활 30년이 넘었다는 어느 무기수의 표정에서 인생의 고뇌를 읽었고 자기를 이겨내려는 굳은 의지를 맛보았다.

그후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바탕으로 포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바로 새싹불자 포교였고 대구지역 불자교사들과 마음을 모아 포교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내가 어머님의 불심을 통해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리의 싹을 틔우기를 바라는 작은 서원이기도 하다.

지난 89년 4월에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시지부를 창립하여 회장을 맡아 대구지역 선생님들의 가슴속에 불심을 심어 자라나는 새싹들의 가슴에 보리의 싹을 틔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90년 11월에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지부 창립 준비에 우리 대구지역 교사불자회가 참여하여 20여개의 분회를 두고 있다. 내년이면 더욱 분회가 늘어 새싹들의 가슴에 불심을 심어줄 기회가 넓어지리라고 생각된다.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맑은 모습으로 고운 말, 바른 말, 순한 말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도록 노력하여, 마음 속으로도 원만한 생각을 지니도록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며 살아 가리라 다짐해 본다.

불심과 불성은 절이나 경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있다

화엄법계의 소울음 소리를 들었느냐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320쪽 / 값 7,000원

이 명상록을 접하는 독자들은
금방 저자인 스님이 법당 안에서만 사시거나
경전의 글귀에만 매이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의 삶 가운데 절간을 짓고 중생의 애환과 눈시울에서
경전을 읽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겪은 대로 말하는 글예술의 수필이 독자로 하여금
지은이의 삶을 머리속에 그려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이라 한다면
스님의 이 명상록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믿는다.

시인, 경상대학교 도서관장 - 강희근

명예, 혹은 명성의 고삐, 체면과 윤리, 도덕의 굴레,
자존심의 송곳, 물질의 멍에…….
나는 이 모든 굴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각자 판단의 잣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아는 만용스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벗은,
그래서 담을 것이 넉넉해져가는 큰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소설가 - 김수용

삶에는 지혜와 용기와 진실이 필요하다

삶이란 뭐꼬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256쪽 / 값 7,000원

"누더기 같은 욕망을 버려라."
"쓰레기같은 집착심도 버려라."
"걸레같은 망상, 똥같은 오만과 편견도 버려라."
나는 한동안 삶에 지친 군상들에게 버릴 것만을 강조했다.
그들이 뽕잎을 먹고 크는 누에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몇번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섶에는 신선한 뽕잎이 고갈되지 않아야 한다는
삶의 법칙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불제자인가.

삶이란 변화가 있고 희망이 존재하는 저마다의 오솔길이다.
나는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중생들의 머리 위에서 노래공양이라도 하고 싶다.
그간 저질렀던 무심, 무능, 무학의 소치를 일부나마 덜기 위하여.

도서출판 빛샘 전화(대) : (02)3143-1516 · 팩스 : (02)3143-1518